

파라과이 선교소식(2/4분기)

2014년 6월 27일

파라과이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사장 김삼환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선교 동역자님들께 기록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곳 파라과이는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특히 파라과이를 비롯해서 북쪽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1993년 이후 21년 만에 파라과이 강의 수위가 또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파라과이 강은 제방이 없어 강변에 있는 마을들이 모두 침수되고 심지어 강변근처에 있는 관공서까지 침수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강은 범람할 때 한국처럼 갑자기 범람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10cm 정도로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 수위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수재민들은 집을 비우고 지대가 높은 공터에 양철 함석으로 지붕을 만들고 베니어판으로 벽을 두른 작은 집을 지어서(3-4시간이면 지을 수 있음) 6개월 이상을 여기서 피난살이를 해야 합니다. 식구들은 많은데 칸막이도 없는 한 칸 방 집에 추운 겨울에 모든 식구가 살아야 하므로 불편과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새생명교회와 남미기독교학교에서는 식량, 의복, 의약품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전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사용하던 봄, 가을, 겨울 의복들이나 라면 같은 식량을 보내주신다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남미기독교학교는 작년에는 문제가 많은 반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이 곳 Fernando de la Mora시 창립 75주년 기념일 행사에 저희 학교도 참석해서 시가행진을 했는데 같이 참석한 다른 어떤 학교보다 돋보이는 복장과 질서정연한 행진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미기독교학교에서는 매일(월-금) 오전 7:00 -7:40에 교사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8월부터 선교적인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 경건회 시간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아침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오전 8:00시 까지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는데 홍보를 잘 해서 수요일 하루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수요일 예배가 잘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주일 예배도 시작해서 남미기독교학교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에 나오는 청년인 Juan과 Alexandro 그리고 지교회인 Cristiana 교회를 섬기는 청년인 Jorge가 파라과이 장로교신학교에 나가 저의 선교부의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꾸

준히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저의 선교부에서는 Rafael, Pablo, Esteban, Eulogio, Vicente, Irma, Luz를 신학교에 보내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었으며 Vicente와 Luz 제외하고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공부를 잘 마쳐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인 Ruth 자매는 이종숙 선교사님의 지도로 피아노를 배운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반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종숙 선교사님이 가르치신 몇 명의 청년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매로서 지금은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찬송가 곡이 주어지면 토요일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다음날 날 주일예배에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는 제법 잘 칩니다.

파라과이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코드에 맞추어서 오르간으로 치는 사람은 많지만 찬송가 멜로디를 피아노로 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이종숙 선교사님이 열심히 가르치신 결과로 작은 결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청년들의 몸 찬양팀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신앙도 아주 순수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게 될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8-30일에 있었던 남미선교사대회도 은혜스럽게 끝나고 이제는 돌아오는 7월 15-18일에 인천 송도 뉴욕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본교단 현장선교사 컨퍼런스와 총회 준비를 위해 7월 10일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컨퍼런스와 총회를 끝으로 저의 세계선교사회장 임기가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파라과이에 와서 저의 선교사역을 돕던 엄차수, 이종숙 선교사님은 한국에 잠시 개인적인 일로 나가 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께서 몇 달을 한 국에서 잘 보내고 다시 파라과이에 돌아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아내 이계연 선교사와 아들 사무엘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저의 아내가 같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하므로 저와 저의 아내, 사무엘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사무엘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명성교회에서 매일 2시간 동안 하는 장애인 프로그램과 탁구장과 사무엘에게 필요한 여러 학원에도 나가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공격적인 성향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함께 선교지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가며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데 오랫동안 자주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계연 선교사와 사무엘이 선교지에 있으면 세 사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선교에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에 저의 아내와 사무엘이 한국에 자주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동역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저의 가정과 사무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명성교회 선교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파라과이에서 부족한 중 임성익 드림

기도 제목

1. 파라과이 강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당한 파라과이 지역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2. 8월부터 시작되는 남미기독교학교의 수요일 아침 예배가 잘 정착되고 이 예배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3. 새생명교회의 청년들인 Juan, Alexandro, Ruth 그리고 지교회의 청년인 Jorge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교회의 귀한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4. 7월 15-18일에 열리는 본교단 현장선교사 컨퍼런스와 총회가 잘 준비되어지고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5. 저의 가정 특히 이계연 선교사와 임사무엘을 위해서